

팔순 앞둔 공양주의 빛나는 회향

군산 성불사 공양주 강옥목 씨 주차난 해결 위해 1억 원 쾌척

20년 넘게 작은 사찰 공양주로 지내며 보시로 받은 돈을 모아 사찰주차장 부지 매입보수에 1억 원을 쾌척한 노보살의 선행이 지역불교계 귀감이 되고 있다.

회향의 주인공은 강옥목(관음행, 76) 보살로 22년째 성불사의 공양주 소임을 맡아오고 있다.

관음행 보살은 성불사에 주차장이 없어 불자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22년 동안 모은 1억 원을 흔쾌히 보시했다.

군산버스터미널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성불사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골목마다 불법주차 된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성불사를 찾는 불자들은 법회일마다 주차할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다. 성불사는 관음행 보살의 보시금을 바탕으로 면적 257㎡(78평)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다.

1974년 군산 동국사와 인연을 맺어 수행생활을 시작한 관음행 보살은 젊은 시절 사업하던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남겨놓은 빚도 공양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청산했다. 그는 유일한 혈육인 아들마저 선운사로 출가한 후 사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1995년부터 군산 성불사에서 공양주 생활을 시작한 관음행 보살은 사찰의 총무와 재무, 원주 소임까지 겸하면서 1인 다역을 소화했다.



군산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관음행 보살.

사찰 공양주라는 힘든 소임을 살아오면서 새벽마다 금강경 독송과 108배를 빼놓지 않아 신도들에게도 모범적인 수행생활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관음행 보살은 “스님들을 모시고 성불사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보시금을 보람된 곳에 사용하고자 꼬박꼬박 모아왔다”며 “성불사를 찾는 불자들이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스님께 부지를 매입하자고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절에서 받은 보시금은 부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보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명 스님은 “관음행 보살이 큰마음을 내주셔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성불사는 관음행 보살님의 큰 뜻을 기려 노보살님들의 수행적인 열불당을 건립하고 관음행 보살이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청련사 28세 주지에 해경 스님

만불전 종각 낙성법회 및 주지 진산식

무학대사가 중창 불사한 신라 천년고찰 태고종 장흥 청련사(구 안정사) 제28세 주지에 해경 스님이 취임했다. 청련사는 5월 21일 ‘만불전 종각 낙성법회 및 제28세 주지 해경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 주지인 해경 스님은 “청련사는 서울 왕십리 시절 1954년 불교 분쟁 발생으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온갖 악행으로 인해 인고의 세월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불보살님의 가르치려 주위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수행해 그 기도원력으로 오늘 대작불사를 발원하는 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부원장 호명 스님(선암사 주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그동안 청련사는 태고종의 본산급 사찰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호하는 호국사상에 바탕을 두고 국난극복과 중생교화, 그리고 지역 민생 안정을 위해 수행정진을 거듭해 왔다”며 “중생의 미혹함을 배운 없이 닦지 아니함이 있다”는 前 주지 백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도들의 탁마 수행처가 되고 미혹 불자들의 해명을 밝히는 안정불교대학을 더욱 발전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월 21일 1천여 대중 동참
종단 대표 격려사 이어져
“흠어진 신심 모을 것” 당부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도 원로의원 지성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서 “이제 청련사는 오늘 낙성법회와 진산식의 회향으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국태민안을 위한 호국사찰로서 한국 불교 태고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가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승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화합으로 흠어진 신심을 다시 모아 일으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청정한 수행포교 가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은 “맑은 대작불사가 있지만 진정 무엇이 대작불사인지 잘 인지해야겠다.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버리라고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우라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로 상대를 무시하고 이해를 못하는 벽을 넘어 우리가 서로 믿고 상생할 수 있는 승단, 청련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태고종 청련사 제28세 주지로 해경 스님(앞줄 왼쪽 첫 번째)이 5월 21일 취임했다. 사진은 종각 낙성법회 장면.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과 “청련사는 1200년 전 중생교화와 호국기원 사찰로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고 부처님 진리를 만민에게 전범해 욕망과 번뇌 가득한 정신세계를 정화함으로써 국가는 태평하고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창건됐다”며 “이런 뜻깊은 청련사가 양주지역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지역민들에게 부처님 가르침과 깨달음을 일깨워 주는 평안한 기도도량이 되고 있다”고 축하했다.

진산식이 끝난 뒤에는 만불전 종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주 사암연합회장 혜성 스님, 정성호 국회의

원, 이상호 양주시장, 황영희 양주시의회 의장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엔 새로 취임한 청련사 주지 해경 스님은 1955년 덕봉 스님을 은사로, 춘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67년 안정사 초급강원을 졸업했다. 1973년에는 신홍사 덕암 스님을 법사로 입실 건당했다. 이후 1975년 봉원사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2001년에는 안덕암 스님으로부터 종사 법계를 풍수했다. 또한 2014년에는 태고종 제13대 원로의원을 역임하고, 2015년에 제14대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어른 도리 다하는 불자 되겠습니다”

천룡사, 성년의례 봉행

천룡사(주지 무등) 성덕문화재단은 5월 21일 대웅전에서 증명법사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허원 스님(정토선원 주지), 현종 스님(화림정사 주지)을 비롯해 예비 사회인, 신도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천룡사 성년의례식’을 개최했다.

예비 사회인 12명이 참여한 이날 성년의례는 전통성년의례와 불교수계의식을 결합해 이채롭게 펼쳐졌다. 의식은 타종을 시작으로 헌공, 거향찬,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성년자 대표선서, 수계연비, 수계약속, 성년선언, 초대순년 축하, 성년자 답사, 증명법사 개도예훈, 성년자 삼배, 계접수여, 가족덕담, 정근,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무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성년의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 위한 행사다. 또 수계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어왔던 허물을 벗어나고 불자이자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의례”라며 “성년의례를



천룡사 성덕문화재단은 5월 21일 대웅전에서 ‘제3회 천룡사 성년의례식’을 봉행했다.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을 깨달아 욕심내고 성질내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지혜로 사회를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되어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는 공덕으로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이슬(범법 청심행) 씨 외 11명의 예비 사회인들은 선서를 통해 “성년이 된다는 것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따르는 책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일”이라며 “이제 어른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사한다”고 합송했다.

증명법사 지각 스님은 개도예훈을 통해 “이제 성년으로서 가족과 사회, 이웃을 위해 상생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며,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랑 담은 짜장스님 교도소서 나눔 펼쳐

‘사랑 실은 짜장스님’으로 유명한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이 군산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운천 스님은 5월 24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군산교도소(소장 박광래)를 방문해 ‘수용자 짜장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봉사자들과 함께 군산교도소를 방문한 운천 스님은 군산교도소 수용자들과 직원 900여 명에게 직접 만든 짜장면을 점심식사로 제공했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수용자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꼽히는 운천 스님의 짜장면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연잎가루를 섞어 만든 면은 일반 중국음식점과 달리 독특한 맛이 있어 전국에서 스님을 찾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운천 스님은 5월 4일에도 광주 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짜장면데이’를 개최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석탑 복원, 눈으로 확인한다

전라북도, ‘미륵사지석탑 중점 공개의 날’ 운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11호)의 복원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라북도는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사업에 대한 중점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

‘미륵사지석탑 중점 공개의 날’은 문화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오전 10시와 오후 3시부터 각 2시간씩 미륵사지의 역사·문화사적 가치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의미, 미륵사지 해체·복원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400년 전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 국가사찰인 미륵사지는 우리나라 불교건축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적으로 미륵신앙을 기초로 한 3법 3급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



해체 전의 미륵사지석탑

미륵사지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고대 역사·문화를 공부하는 초·중·고등학생 단체 관람과 익산 관광객들의 핵심 방문 코스가 됐다. 미륵사지석탑 해체·복원사업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며 2014년부터 그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강저 108염주

천수경·반야심경·관음정근·지장정근을 할 때 이제부터는 108백팔금강저염주를 돌리십시오!

일심으로 한알한알 돌릴 때마다 시방법계 부처님 법구의 무량한 힘으로 수행과 참회를 빛내 청정심이 되고, 전생부터 이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소멸이 속히되어 망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인연에 따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 사찰에서 고통이 심한 신도님에게 천도재가 어려울 때, 발원기동용으로 사용하시면 소원성취가 속히 이루어짐으로 스님들께서 방도방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며, 사찰불사용으로 적절합니다. 스님들께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백팔금강저염주를 소지하실 때 부처님 법단에 7일에서 21일간 올려놓으신 후 사용하시면 효험이 더욱 큼니다.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 하였는데, 금반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업장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자손득남 발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흠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32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 전화 : 010-4233-7099